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소통 이끄는 복합공간 거점 육성

총 680억원 투입...전국 혁신도시 최대 규모

교육 등 전 세대 융복합...공동체 거점 기대

나주시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개관했다.

시는 최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 시작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시장과 이재남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광주시 관계자, 유관기관, 사회단체,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총사업비 68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로, 국비 190억원과 전남도 50억원, 광주시 50억원, 나주시비 390억원이 투입됐다.

이곳은 전국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면적 4475㎡, 연면적 2만 1091㎡로 조성

됐다. 또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전시실)과 세미나실, 청년창업공간,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센터, 정촌놀이터 등 문화와 체육, 교육 기능이 결합한 복합공간을 갖추고 있다.

전시실에서는 개관을 기념해 '나현' 작가의 설치미술 특별전이 오는 4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은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범 무료 운영을 실시해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식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생학습관과 청소년문화센터, 정촌놀이터 등 시설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한층 개선하고 시



나주시가 최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행사에는 윤병태 시장과 이재남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광주시 관계자, 유관기관, 사회단체,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체육, 교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해 지역 공동체 소통과 활력을 이끄는 핵심 거

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문화, 체

육, 교육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

램 운영과 안정적인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섬박람회 성공개최 동참

첫 정기 실천협의회 개최 참여 확대 방안 논의

여수시는 최근 여수생활문화센터에서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 실천협의회 2026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27개 읍·면·동 시민운동 실천본부장이 참석해 올해 시민운동 추진 계획과 3월 중점 실천의 날 권역별 캠페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읍·면·동 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섬박람회 붐업 분위기 확산과 적극적인 홍보,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17일에는 '3월 중점 실천의 날'을 맞아 이순신광장과 여문 문화의 거리, 흥국사가 등에서 현장 중심의 캠페인



여수시는 최근 여수생활문화센터에서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 실천협의회 2026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을 운영하며 시민 실천 활동을 전개해 섬박람회 개최를 앞둔 지역사회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실천본부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생단체와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캠페인을 통해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

원할 계획이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을 통해 선진 시민의식을 확산하고 시민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섬박람회 준비에 힘을 모으주시

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들산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는 13일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남개발공사, ESG협업체와 '사랑의 헌혈' 동참 혈액 수급 안정적 공급 동참...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실천

전남개발공사가 대한적십자사, 전남도 공사·출연기관 ESG협업체와 함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랑의 헌혈을 통해 모아진 헌혈액 중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된다.

전남개발공사는 매년 임직원은 물론 사

육 임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남도 ESG협업체가 함께한 두 번째 단체 헌혈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임직원들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혈액 부족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에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산구, '온(溫)동네 안녕하세요' 추진

21개 동·지사협 참여...복지 안전망 구축

광산구가 고립 및 위기가구 발굴과 촘촘한 이웃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숨은 이웃 찾기, 온(溫)동네 안녕하세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이웃 간 안부 확인을 넘어 숨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주민 참여형 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광산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21개 동과 지사협 위원장이 참여한 확대회의, 동 위원장 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의결했으며, 동 지사협 위원 62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동별 실천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수안동 지사협을 중심으로 11개 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숨은 이웃 찾기 추진단 발대식'을 열어 사업의 시작을 알렸으며,

21개 동 협의체가 곳곳에서 숨은 이웃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동곡동·송정2동 지사협은 발굴된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동네가 이웃을 살피는 마을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광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담양군은 최근 읍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구강건강 관리 사업'을 시작, 4월 2일까지 추진한다.

담양군, 맞춤형 서비스로 치아 건강 지킨다

내달 2일까지 경로당 순회 관리 운영

담양군은 최근 읍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구강건강 관리 사업'을 시작, 4월 2일까지 추진한다.

치과과사와 치과위생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검진, 위생 상태 확인, 올바른 칫솔질, 틀니 관리 교육, 상담 등이다.

특히 고령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질환을 조기에 예

방하고, 음식물을 씹는 기능 유지와 전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입속 건강은 전신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영암읍 개신리 일대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밀렵·밀거래 단속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영암읍 개신리 일대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월출산 자원활동가, 영암방범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울무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한 결과 최근 5년간 월출산국립공원에서 수거된 불법엽구는 총 4점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들을 무단으로 포

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밧, 울무 또는 합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등산객의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자연과 야생동물을 지키는 일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